

인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환영한다.

지난 6월 27일 인천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었다.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은 인천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만큼 인천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300만 인천 시민, 기업인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불과 수십년 전만해도 바이오 불모지였던 인천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들을 필두로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현재 인천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은 116.5만L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214.5만L로 약 2배 확대될 계획이다. 이번 인천의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은 인천 기업과 시민의 땀과 노력에 대한 결실이며, 인천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한 것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인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집결지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R&D 및 인력양성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글로벌 생산·협력의 거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바이오 원부자재 강소기업 육성 거점으로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하여 인천이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그동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해왔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019년 지역 내 기업·유관기관들과 함께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인천시와 함께 인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현재 인천에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K-바이오 랩허브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은 그동안 인천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제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가 하루라도 빨리 조성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상공회의소도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 기업 유치,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들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시 한번 인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환영한다.

2024. 6. 30

인천상공회의소

회 장 박 주 봉